

부산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전달에서 변용과 창조에 관한 경험적 연구*

-언어혼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오미경** · 박민수***

Abstract

OH, Mi-Kyoung & Park, Min-soo 2013. 2. 28. **On the Modification and Creation in Communication of Marriage-migrant Women Residing in Busan -Focusing on mixed use of language and nonverbal interaction-** *Bilingual Research 51*, 181-216.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verbal and nonverbal features of the Japanese marriage migrant women who reside in Busan in thei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For that, four steps of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bases of questionnaire survey and video analysis.

In the first step, it follows from the analysis of their utterances that there were - especially in the cases of two women - many mixed uses on the lexical level. And it was observed that there were mixed uses of languag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ative language (Japanese) and the changing of the passive into the active sentences. In the second step, the contents of utterances of the working women in the sampl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full-time homemakers. From this comparison and analysis, it follows that in the case of the homemakers more mixed uses of languages on the lexical, grammatic and expressive level were found than in the case of the working women. Furthermore, there were explanations for some words in the utterances of three working women, which were not seen in the homemaker's utterances.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In the third step of the research, the homemaker's nonverbal behaviors and interactions were analyzed. Here we could see that the homemakers did not end the one-sided communication alone, but often asked the hearers for help and cooperations. In the fourth and last step, it was analysed that the working women's nonverbal behaviors and features of the interaction - compared with the homeworkers - had a tendency of the alone completion of the communication, not depending on the interaction with hearers.

According to the Bhabha's theory,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by these Korean-use homemakers can be defined as doing the communication activities in the *third space*, the *in-between* or the *hybride zone*, and as doing the activities of the language-cultural creative interaction. (Korea Maritime University)

【Key words】 일본인 결혼이주여성(Japanese marriage migrant women), 한국어 발화(Korean utterances), 변용과 창조(modification and creation), 언어혼용(mixed uses of languages), 비언어행동(nonverbal behaviors), 상호작용(interactions).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및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담론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문화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문화간 의사소통에서 언어 및 비언어적 특징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해항도시 부산에 거주하면서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로 발화할 때 언어(언어혼용) 및 비언어 행동(상호작용)에 어떠한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밝히는 데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언어혼용)과 창조 현상(비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사회·언어적 관계망 및 언어사용 의식의 분석 결과도 함께 비교·검토될 것이다. 황정미(2010)에 따르면 이주민이 놓여있는 네트워크, 즉 사회연결망

(social network)에 대한 분석은 전지구적 인적 이동을 촉발시키는 거시적 구조(시각)와 이주를 실천에 옮기는 행위자라는 미시적 구조(시각)를 중재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특징의 현상만을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사회·언어적 관계망 및 한·일 언어사용 의식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문화교섭에 있어 변용과 창조에 관한 이론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다언어적 상황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문화변용 및 창조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교섭에서의 변용과 창조에 관한 이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문화변용(accultruation)은 일반적으로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할 때 겪게 되는 문화적 변화와 적응의 과정”(Gibson, 2001: 19)이라 정의된다. 이러한 문화변용을 베리(Berry, 1997)는 통합(integration)과 동화(assimilation), 분절(segregation), 주변화(marginallisation)라는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통합’이 자문화(혹은 원문화)를 유지하면서 타문화(혹은 도착문화)를 받아들이는 유형을 가리킨다면, ‘동화’란 자문화를 버리고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유형을 뜻하며, ‘분절’은 동화와 정반대로 자문화는 지키고 타문화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주변화’는 자문화도 지키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베리의 4가지 문화변용 유형 구분은 이후 이민자 연구에서 활발하게 원용되었다(조창환·성윤희, 2010). 이때 베리의 모델은 - 통합의 유형에서 확인되듯 - 이질적 문화들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정진경·양계민, 2004), 그런

점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모델로 인정되었다(조창환 · 성윤희, 2010: 377).

그렇지만 베리의 모델은 - 다문화주의 내지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한 대다수 모델이 그렇듯 - 문화를 본질적이고 동질적인 통일체로 파악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Shimada, 2004: 481). 즉 이 모델에서는 문화가 ‘고유한 뿌리를 갖고서 오랜 시간 같고 닳여 완성된, 특정 집단적 주체만의 산물’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질적인 다수 문화의 통합이 어떤 양태로 실현되는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완결적 · 본질적 성격을 갖는 두 문화가 어떻게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되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himada(2004)는, 본질주의적(essentialistic)관점의 문화변용 이론에 내재된 이러한 난점이 문화 혼종성(hybridity)을 제안하는 관점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주지하듯 생물학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문화의 순수 동질성과 연속성의 신화, 한 마디로 본질주의의 신화를 타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개념 내지 구상은 다수 본질적 정체성의 다문화적 병존이 아니라, 중심과 주변, 자아와 타자로 분리되었던 것들의 불가분한 상호적 혼용과 전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상은 문화를 복잡한 과정적 · 가변적 산물로 파악하며, 문화 · 인종 · 민족 등의 경계를 고정된 실체들 사이의 경계라기보다 문화형성 주체들 사이의 의식적 · 무의식적 (의미 내지 가치) 부여행위의 산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경계는 상호영향과 전이과정에서 늘 변화의 가능성을 갖는다.

오늘날 문화 혼종성 이론을 대표하는 사상가 중 한 사람은 호미 바바(2002)이다. 바바는 일정한 고유성을 갖는 개별 문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는 그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과정적이고 창조적인 구성의 산물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려 한다(호미 바바, 2002: 95 이하). 바바에 따르면, 개별 문화는 - 무엇보다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에 기대어 -

안정성과 확정성, 완결성의 욕망을 드러내지만, 사실 그 자체 내에 언제나 “자신과 불화하는 한계(self-alienating limit)”(Bhabha · Rutherford, 1990: 210)를 지니고 있다. 문화란 언제나 모순적이고 적대적인 요소들, 한 마디로 타자적 요소들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특정 문화와 그 정체성을 부단한 움직임과 변화 속에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이질적인 문화와의 교섭과 혼종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바바에 의하면, 한 문화 내 이질적(타자적) 요소들의 마주침이나 이질적 요소로서 문화들 간의 만남은 “제3공간 (the third space)”(Bhabha · Rutherford, 1990) 내지 “틈새 (interstices)”(호미 바바, 2002: 28)를 만들어내는 바, 이는 갈등과 이를 극복하려는 “교섭(negotiation)”(호미 바바, 2002: 29) 작용이 일어나는 시공간을 지칭한다. 그런데 바바에 의하면, 이러한 교섭은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적 종합이란 형태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모종의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교섭은 차이들의 부단한 반복적(iterative) 놀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바바의 모델에서 문화들(내지 특정 문화 내 이질적 요소들) 사이의 교섭은 하나가 다른 하나로 완전하게 ‘동화’되거나 원본에 해당하는 무엇을 타자가 완벽하게 ‘복사’하는 방식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물론 교섭(문화변용)에서는 일정 정도 동질·동형화를 추구하는 접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 차이들의 부단한 반복적 놀이로서의 - 교섭은 다시금 부단히 틈새 내지 제3공간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문화교섭에서는 결코 동질·동형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바바(호미 바바, 2002)는 ‘비토착적(unhomely)’, ‘결정불가능성’, ‘다리(bridge)’, ‘넘어서(beyond)’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비토착적’이란 고향(원본)에서 벗어난

1) “문화의 의미와 상징들이 어떤 근원적인 통일성이나 고정성도 갖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은 (...) 바로 제3의 공간이다. 즉 제3의 공간은 똑같은 기호들조차도 새롭게 충당되고 전이되며 재역사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호미 바바, 2002: 91)

이질적 상태를 의미하며, ‘결정불가능성’은 그 정체성을 단언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다리’란 어느 하나로 귀속되지 않고 부단히 다른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달리 말해 네트워크성을 지칭한다. ‘넘어서’ 역시 어느 하나로 귀속되지 않는 틈새 내지 사이의 성격을 함축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3공간 내지 틈새는 바바의 의해 창조적인 것으로 규정되며, 따라서 문화의 교섭이란 근본적으로 - 동화냐 분절이냐의 양자택일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 창조적 변용이라 사유된다. 이 점은 바바가 문화교섭의 양태로 설명하는 - 넓은 의미의 - 번역과 모방(mimicry)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그에 따르면, 문화 사이의 “번역은 모방의 방식이긴 하지만 (...) 의미를 치환시키는 방식에서 그렇다. 즉 원본의 우위가 강화되지 않고 원본이 (...) 복제되고 전이되고 변형될 (...)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방의 방식인 것이다. (...) 원본은 결코 그 자체로 종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Bhabha · Rutherford, 1990: 212) 타문화의 모방에서도 유사성만이 아니라 비유사성 또한 산출되기 마련이다. 즉 모방하는 측은 타문화로 동질화되는 것 같지만 “문화적 · 인종적 · 역사적 차이라는 방해물”(호미 바바, 2002: 184 이하)로 인해 부단히 차이를 드러낸다. 문화적 모방은 가장 근접한 경우일지라도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음”(호미 바바, 2002: 186)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과 차이는 결국 창조와 생산의 잠재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적 교섭 내지 변용 일반의 이러한 특징은 언어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그러한 특징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도 관찰될 수 있겠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집단의 만남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문화 집단의 교섭은 한쪽이 다른 쪽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며 다른 쪽을 이해시키려 하는 양태로 일어난다(양쪽 모두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고, 한쪽만이 그럴 수도 있다). 이때 언어습득의 노력과 사용은 하나의 번역이자 모방 행위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외국어 사용에 의한 의미교섭은 언제나 제3공간 내지 틈새 혹은 혼

종지대에서의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지극히 창조적인 교섭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문화접촉공간 부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에 의한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관해 알아보는 것은, 혼종지대에서 이뤄지는 언어문화적인 창조적 교섭행위를 확인해 보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2. 본 연구의 문제의식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특징에는 발음의 부정확성과 조각문 발화의 빈번한 출현, 단어의 중복표현, 타인 주도적 발화 수정, 특정한 연결어미의 과잉사용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김선정, 2007; 왕한석, 2007; 이정희, 2011). 오미경(2012)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주부화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 두 그룹의 화자가 한국어로 발화할 때 언어수준이 각기 다른 타자(청자)의 언어능력을 배려하는지, 배려한다면 이는 제스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²⁾ 오미경(2012)의 연구가 시사 하는바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제스처 산출양식을 통해 타자(한국어 비모어화자)에 대한 표상이 그들의 내면성(화자 자신의 한국어

2) 두 그룹 화자의 표상 제스처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특징은, ‘일본인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산출된 표상 제스처 산출량에서 나타났는데, 즉 한국인 주부보다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에서 약 2.5배나 적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 오미경(2012)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발화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면 타자에 대한 이미지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러한 타자 이미지에 대한 모호함이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성에 더 집중하게 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요컨대 오미경(2012)에서 시사된 점은 제스처 산출양식을 통해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타자(한국어 비모어화자)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타자인식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외부적 환경보다 내부적 환경(내면성)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운용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미경(2012)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제스처 산출량(양적 연구)이 분석되는데 그치지 않고, 발화분석 결과(질적 연구)가 비교·검토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현상으로서의 언어혼용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조적 특징이 있는지 이들의 ‘사회·언어적 연결망’과 ‘한·일 언어사용 의식’의 분석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쌍방향적 연구방법론을 수행할 경우, 제스처 조사연구(양적 분석)와 발화 및 의식 조사연구(질적 분석) 중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의사전달 행동에 관한 종합적 안목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자

본 조사에 참가한 연구대상자는 부산시 및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8명(평균연령 36.0세)이며 조사는 2011년 5월에 실시되었다.

3.2. 조사 방법

조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본 실험의 목적이 ‘애니메이션의 이해와 설명’에 관한 조사이므로,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도록 전했다. 조사자는 조사가 종료된 후, 실험 중 녹화된 자료는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데이터 또한 수량적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이름과 얼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피험자에게 알렸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는 미리 준비해 둔 실험에 관련한 질문용지를

작성했으며, 조사자는 이를 토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3.3. 한·일 언어사용 의식 분석

한·일 언어사용에 대한 의식 분석에서는 질문용지를 토대로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언어적 관계망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한·일 언어사용 의식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한·일 이중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항목을 4가지로 구성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사회·언어적 관계망: 당신이 현재 한국에서 어울리는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혹은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2) 일본어 대화 상대방: 당신이 일본어로 대화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이며,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 (3) 한국어 대화 상대방: 당신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이며,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 (4) 한·일 이중언어 대화 상대방: 당신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섞어서 대화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이며,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3.4. 언어 및 비언어적 특징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속성

연구대상자의 속성을 연령과 일본출신지, 한국체재기간(체재장소, 시부모 동거 여부, 자녀, 거주 지역, 다문화접촉도³⁾), 다문화 접촉 대상의 총 8개(A~H) 항목으로 나타냈다.

3) 여기서 ‘다문화 접촉도’란,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이 일본인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른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어느 정도 접촉 횟수가 있는지를 뜻한다.

(2) 두 그룹(전업주부, 직장인 주부)별 사회·언어적 관계망 및 한·일 언어사용 의식

① 사회적 관계망과 접촉 정도(총 8개 항목: 한국인 친구, 일본인 친구, 한국인 동료, 일본인 동료, 한국인 친척, 일본인 친척, 가족, 기타): 이들 사회적 관계망을 8각형으로 나타냈으며, 이 관계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지 혹은 여러 집단으로 분포하는지에 따라 연결망의 다양성 및 접촉의 정도를 알 수 있다.

② 언어별(일본어/한국어/한·일 이중언어)로 대화하는 상대방과 그 빈도: 사회적 관계망을 토대로 8각형으로 나타냈으며, 이 관계망이 특정 집단에 집중 되는지 혹은 여러 집단으로 분포하는지에 따라 언어별(일본어/한국어/한·일 이중언어)로 대화하는 상대방의 다양성과 대화의 정도를 알 수 있다.

(3) 두 그룹(전업주부, 직장인 주부)별 언어 및 비언어적 특징

① 언어의 혼용 및 오용 단위: 어휘, 문법·표현

② 비언어의 혼용 및 오용 단위: 제스처, 상호작용(질문 등), 기타(웃음, 시선맞춤 등)

4. 결과

4.1. 데이터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의사 전달에서 나타나는 언어혼용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제스처, 웃음, 시선맞춤 등)의 구조적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이들의 속성을 ‘전업주부’와 ‘직장인 주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⁴⁾ 만약 전업주부와 직장인 주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접촉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

(언어혼용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는 연구대상자의 발화내용과 비디오 영상, 질문지(언어사용 의식)의 세 가지 종류를 토대로 조사자 1명이 분석하였다. 먼저 발화내용의 분석에서는 각 연구대상자의 비디오 기록에 담겨 있는 발화내용 및 비언어행동이 전사되었다. 그리고 언어사용 의식에서는 질문용지를 토대로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언어적 관계망’에 대해 분석했다.

4.2. 전업주부의 사회·언어적 관계망과 언어·비언어적 특징

4.2.1. 전업주부의 개인별 특징

(1) 연구대상자 1번 Y씨

이하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1번 Y씨의 속성과 사회·언어적 관계망(그림 1), 언어·비언어적 특징(표 1)을 나타낸다.

①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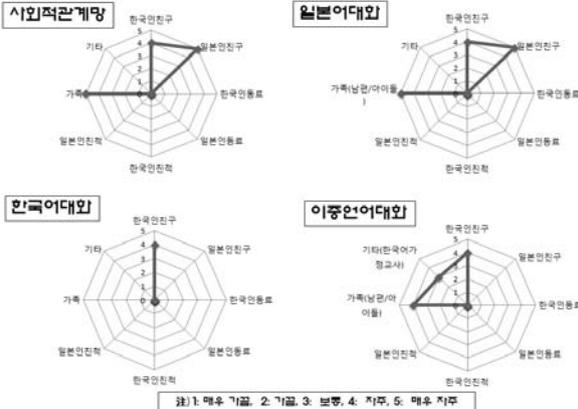
- A. 연령: 35세
- B. 일본 출신지: 아이치현
- C. 한국체재 기간(체재장소): 9개월(부산)
- D. 시부모 동거 여부: 함께 살지 않음(※일본인 남편)
- E. 자녀: 2명
- F. 거주 지역: 수영구 민락동

4) 최혜지(2008)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다양한 특성에 의해 문화변용 유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비교·분석했다. 최혜지(2008: 251)에 따르면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결혼이주여성은 ‘주변화 유형(자문화도 지키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이 많았으며, 직업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은 ‘통합 유형(자문화를 유지하면서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유형)’이 많았다.

G. 다문화 접촉도: 있음

H. 다문화 접촉 대상: 일본인 학교(광안리) & ‘일한 커플’(한국인 남편
모임의 일본인

② 사회·언어적 관계망



<그림 1> 연구대상자 1번의 사회·언어적 관계망

③ 언어·비언어적 특징

<표 1> 연구대상자 1번의 언어·비언어적 특징

혼용/변용레벨		발양특징	예시
언어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 빌러 영어 사용 일본어 단어 	-에도(えと), 출도(출-と), 에(え-), 데(て) -뿐만, 아 도안 도안준다 -이요코(雛), 항상 고향이는 미케루(負ける), 아자라시(海豹), 예시(餌), 츠루가시(こい)(ずる賢い), 카라카와테루(からかわれる)
	문법/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한국어 혼용(※대외 상대: 한국인 정자) 일본어 단어 활용 오용 나 영형(및 변+も) 	-이토노(後の 내용외(내용)는 좀 항상 그런 이야기 에도 데 오 이리데스(終わりです). -작은 닭 한국말로 뭐예요? (뭐라고 예요) -아자라시 한국말로 뭐예요? (뭐라고 예요) -몇 번도(아-)
비언어	제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양내용을 보충 	-닭 (날개 짓) 작은 한국말로 뭐예요? -귀여운 작은 것 (날개 짓) 뭐예요? -고양이를 에도 (고침)는 제스처) 쥐가 (머리는 제스처) (웃음)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일본인 정자에게 확인 질문 	-작은 닭 한국말로 뭐예요? -아자라시 한국말로 뭐예요? -귀여운 작은 것 뭐예요? -에사 한국말로 뭐예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르는 단어: 침묵 및 웃음 	-항상 그런 이야기 (침묵) (웃음) 에도 데 오이리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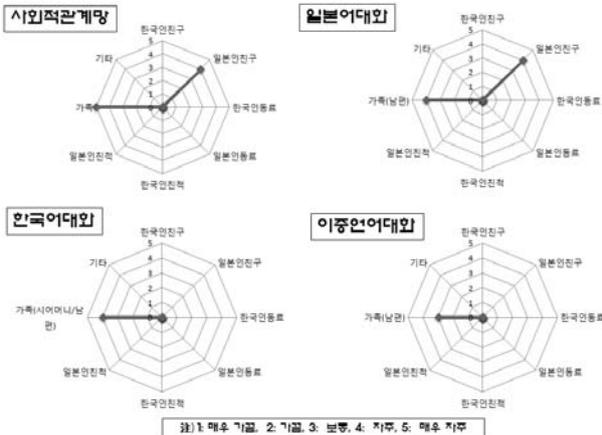
(2) 연구대상자 2번 U씨

이하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2번 U씨의 속성과 사회·언어적 관계망(그림 2), 언어·비언어적 특징(표 2)을 나타낸다.

① 속성

- A. 연령: 36세
- B. 일본 출신지: 아이치현 기후
- C. 한국체재 기간(체재 장소): 1년(부산)
- D. 시부모 동거 여부: 시어머니와 동거
- E. 자녀: 없음
- F. 거주 지역: 영도구 동삼동
- G. 다문화 접촉도: 있음
- H. 다문화 접촉 대상: 한글교실, 다문화가정(한글무료교실)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

② 사회·언어적 관계망



<그림 2> 연구대상자 2번의 사회·언어적 관계망

③ 언어 · 비언어적 특징

< 표 2 > 연구대상자 2번의 언어 · 비언어적 특징

혼용/번용 레벨	발화특징	예시	
언어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빌려 • 일본어 단어 및 조사(が) • 영어 사용 	-데(で, 어도(어-と)) -오동세, 어자러시, 평민기(평민이) -레이크 (포수)
	문법/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댓말 관양일반화 • 니 영향(恩恵する) • 일본식 발음(/ɾ/ 또는 /-/ 모음 첨가) • 인칭 존칭(3인칭 → 1인칭) 	-제리가 도입주셔서(도입줘서) -습을 할 수 없다 (습을 할 수 없다) -끝나무습니다 (끝났습니다), 돌고기(돌이) -평민기 낚시에도 그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랐어요)
비언어	제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화내용을 강조하거나 보완 	-아나 아나 (잡우 손을 내지는 제스처) -제리가 도망가서 (물러가는 제스처) -도망가고 케이크 케이크 솜 (등그런 모양 제스처) -돌고기 이렇게 (벌레 모양) 습 할 수 있는 돌근 사용해서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자에게 도움 or 확인 시선 맞춤 • 한국인 정자와 활발한 의미교환 	-엄마이고 같이 (시선) 수영하고 싶어서 (시선) -수영할 수 없는 아기가 너무 울어서 (시선) -습이 할 수 없는 (한국인 정자 설명) 아 나쁜 나쁜 것도 (한국인 정자 설명) 아 네 네네 (웃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는 내용: 침묵 or 웃음 	-도망 아 어떡해 (웃음) 솜 (침묵) -갈국 솜 (침묵) 돌고기 안 마리도 없어서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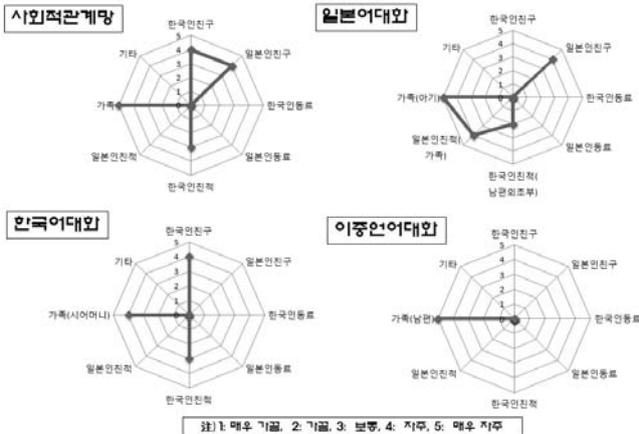
(3) 연구대상자 7번 K씨

이하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7번 K씨의 속성과 사회 · 언어적 관계망(그림 3), 언어 · 비언어적 특징(표 3)을 나타낸다.

① 속성

- A. 연령: 29세
- B. 일본 출신지: 후쿠오카
- C. 한국체재 기간(체재 장소): 1년 7개월(부산)
- D. 시부모 동거 여부: 시어머니와 동거
- E. 자녀: 1명(1세)
- F. 거주 지역: 금정구 장전동
- G. 다문화 접촉도: 있음
- H. 다문화 접촉 대상: 한글교실에서 만난 ‘한일커플’친구들

② 사회·언어적 관계망



<그림 3> 연구대상자 7번의 사회·언어적 관계망

③ 언어·비언어적 특징

<표 3> 연구대상자 7번의 언어·비언어적 특징

혼용/변용레벨		발음특징	예시
언어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 필러 일본어 단어 	-에또(えと) -라게즈
	문법/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식 영어발음 수동표현 → 능동표현 [-에게/한테] 조사 생략 나 영형(産する) 모르는 단어 임피 주격 조사 생략 	-짚프(詰っ) -뒤시에 물고기 잡아 있었는데(잡어 있었는데) -그양이 어떤 (고양이한테 어떤) -물위에 얼음 두경울 예요 (두경울 만어요) -얼음구멍 → 물 -행진 나왔요, 그 물개 있었어요, 물개 있어서
비언어	제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스처 + [-이다]제 발내내용 강조 	-행진이 앞으로 쾅 (앞으로 당기는 제스처) 이는 거야 -뭇 번에도 물 안 속에 막 (빠져드는 제스처) 예요. -뒤는 이렇게 (수영 제스처) 이는 거야, (수영 제스처) 이면서, 이렇게 (수영제스처) 연습에도 -스토로우를 쪽 (공기 부는 제스처) 어떤, 휘가 (공기 부는 제스처) 후속 이고, 고양이에게 쪽 (부는 제스처) 예요. -고양이 얼음을 팡팡 (눈을 찌르는 제스처) 했어요
	상호작용		
	기타		-물개를 잡으려 하는데 (잡으려 가는 제스처) -그 뉘시(아)는 물 두 개 있는데 (두 구멍 모양의 제스처) -거기에 물개가 왔다 갔다 예요 (오가는 제스처) -물 위에 기고 그 스토로우 있었어요 (발대모양 제스처) -고양이 얼음이 막 작게 되고 (찍어지는 제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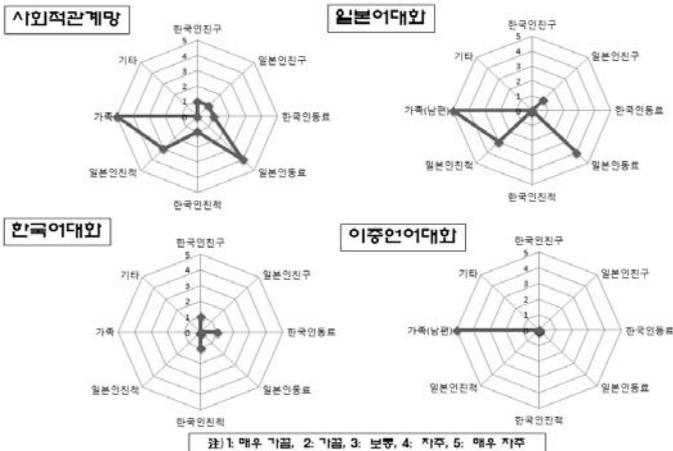
(4) 연구대상자 8번 K씨

이하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8번 K씨의 속성과 사회·언어적 관계망(그림 4), 언어·비언어적 특징(표 4)을 나타낸다.

① 속성

- A. 연령: 30세
- B. 일본 출신지: 아이치현 기후
- C. 한국체재 기간(체재 장소): 10개월(부산)
- D. 시부모 동거 여부: 함께 살지 않음
- E. 자녀: 없음(임신 중)
- F. 거주 지역: 금정구 남산동
- G. 다문화 접촉도: 거의 없음
- H. 다문화 접촉 대상: 한 달에 한 번 한글교실에서 만난 지인

② 사회·언어적 관계망



<그림 4> 연구대상자 8번의 사회·언어적 관계망

③ 언어 · 비언어적 특징

< 표 4 > 연구대상자 8번의 언어 · 비언어적 특징

혼용/변용레벨		발입특징	예시
언어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필러 • 일본어 어휘 	-에(えー) -네즈미(ねずみ)
	문법/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표현 → 능동표현 • 인지동사 → 상태동사 • 나열형 (명사+中) • 상위개념 단어사용 	-남시에 들리기 싫어있었는데(잡어있었는데) -계속 했습니까 (계속 되었습니다) -막으려 있었습니까(했었습니다), 도외 아라 (도외 주라) -바다 중에 (모든/은 바다에) -취 → 등불
비언어	제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입내용을 강조 	-어까 써올 막 써올 것이 (디투는 제스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격/실존인 정자에게 확인질문 	-팽킨? 팽킨이라고 애도 됩니까? -디문 구멍? 구멍 마 됩니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는 단어니 실수: 침묵 or 웃음 	-그 새끼는 연슬애도 수영할 수가 없고 (웃음) 어 똥개 (침묵) 수영도 안이고... -그 등불은 같이 써우고 그리고 (침묵) 팽킨 새끼는... -아 아니디, 짐승입니다 (웃음) -바다 중에 풀을 있었습니 (웃음) 있어서 (웃음) 근데... -디문 구멍? (침묵) 구멍 마 됩니까? (웃음) -장난스럽게 이는 그 등불에게 좀 외가 나서 좀 써웠어요 (침묵)

4.2.2. 전업주부(4명)의 언어적 혼용과 비언어행동 및 상호작용

(1) 언어 혼용

앞 절에서 분석한 전업주부 4명의 한국어 발화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전업주부의 한국어 발화에서는 어휘 단위(예컨대 일본어의 필러(fillers)⁵⁾와 조사, 단어 및 영어 사용 등)의 혼용이 많았는데 특히 1번과 2번 화자의 발화에서 두드러졌다. 그리고 1

5) 필러란 田中(1981)와 Clark & Fox Tree(2002)에 의하면 무의미한 음성을 수반하는 휴지(pause)가 아니라 간투사의 일종이다(예컨대 언- 물개가..., 팽킨이 읊-얼음 위에서...). 이러한 필러가 종래에는 무의미어로 간주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담화관리상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남길임(2011)에 따르면 필러(삽입)를 포함한 한국어의 비유창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기수정과 반복 등 특정 현상에 대한 항목이 주류를 이루어왔다(남길임, 2011: 116). Levelt(1989)에 의하면 필러란 발화과정 중 곤란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발화수정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청자에게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명시적 수정(covert repairs)” 이라 하였다.

번 화자의 경우는 어휘 뿐 아니라 문장 단위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혼용하는 현상이 보였다. 이 두 명 화자의 사회·언어적 관계망을 보면, 이들은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는 관계망이 각각 ‘한국인 친구’(1번)와 ‘가족’(2번)만으로 평소 한국어에 의한 의미교섭망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두 명 화자의 언어관계망에서는 ‘한국어 대화’보다 ‘일본어 대화’가 더 넓었으며 그 횟수 또한 많았다. 둘째로, 모든 전업주부의 발화에서 모어인 일본어 영향에 의한 언어혼용(오용)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수동표현을 능동표현으로 변용한 현상도 보였다(7, 8번 화자).

(2) 비언어행동 및 상호작용

다음으로 전업주부 4명의 비언어행동 및 상호작용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전업주부들은 청자와의 언어·비언어적 상호작용(예컨대 청자에게 확인질문, 시선맞춤)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전업주부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침묵으로 가만히 있거나 웃음으로 회피해버리는 비언어적 행동전략을 사용했다(특히 1, 2, 8번 화자). 마지막으로 전업주부 화자들은 발화내용을 강조하거나 보완할 때 제스처를 사용했는데⁶⁾, 특히 7번 화자의 경우 ‘제스처+<하다>체’ 행동전략을 풍부하게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6) 여기서 제스처의 기능을 발화내용의 강조 혹은 발화내용의 보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했다. 즉 화자가 발화한 내용을 제스처로 반복하여 나타낸 경우는 ‘발화내용의 강조’로 분류했으며, 화자가 발화하지 않은 내용을 제스처로 나타냈을 경우는 ‘발화내용의 보충’으로 분류했다.

4.3. 직장인 주부의 사회·언어적 관계망과 언어·비언어적 특징

4.3.1. 직장인 주부의 개인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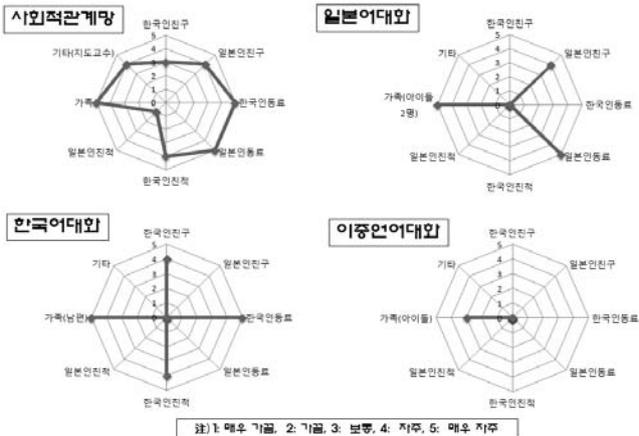
(1) 연구대상자 3번 H씨

이하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3번 H씨의 속성과 사회·언어적 관계망(그림 5), 언어·비언어적 특징(표 5)을 나타낸다.

① 속성

- A. 연령: 42세
- B. 일본 출신지: 미기록
- C. 한국체재 기간(체재 장소): 14년(김해)
- D. 시부모 동거 여부: 미 기록
- E. 자녀: 2명(중1, 초3)
- F. 거주 지역: 김해시 장유면
- G. 다문화 접촉도: 있음
- H. 다문화 접촉 대상: 이웃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② 사회·언어적 네트워크



<그림 5> 연구대상자 3번의 사회·언어적 관계망

③ 언어·비언어적 특징

<표 5> 연구대상자 3번의 언어·비언어적 특징

폰용/변용레벨		발화특징	예시
언어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 필러 일본어 조사 	-데(て) -소금(か(소금인자))
	문법/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료형 → 미태형 모르는 단어(발대) 자세히 설명 	-평간은 물고기 잡은 거리고(잡은 거리고) 생각했는데 -입에 짬술? 아 안에 구멍이 있는 그 막대기 같은거 입에 넣고 물에 들어갔어요.
비언어	제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화내용을 제스처로 대체 	-그래 술을 (술 위는 제스처) 그래서 뒤 앞 글이 부었어요.
	상호작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 정치에게 전천히 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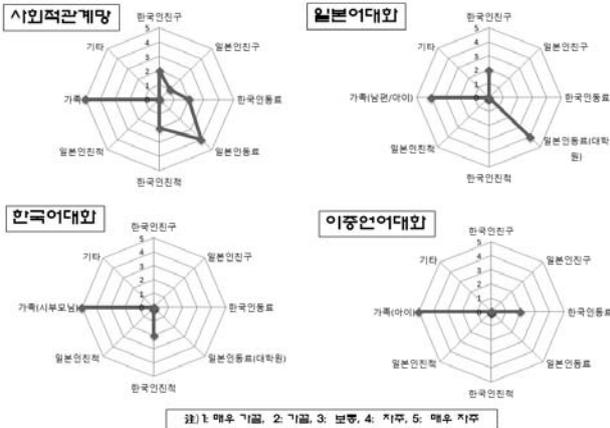
(2) 연구대상자 4번 I씨

이하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4번 I씨의 속성과 사회·언어적 관계망(그림 6), 언어·비언어적 특징(표 6)을 나타낸다.

① 속성

- A. 연령: 38세
- B. 일본 출신지: 도쿄
- C. 한국체재 기간(체재 장소): 1년 3개월(부산)
- D. 시부모 동거 여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동거
- E. 자녀: 1명(6세)
- F. 거주 지역: 해운대구 좌동
- G. 다문화 접촉도: 거의 없음. 그러나 직업상(일본어 강사) 가끔 있음
- H. 다문화 접촉 대상: 일본어 강사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② 사회·언어적 관계망



<그림 6> 연구대상자 4번의 사회·언어적 관계망

③ 언어 · 비언어적 특징

<표 6> 연구대상자 4번의 언어 · 비언어적 특징

혼용/변용레벨		발달특징	예시
언어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 필러 일본어 단어 	-데(て) -비케즈
	문법/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식 영어발음 단어(복) 설명 모르는 단어를(개) 상위개념 단어 사용 	-아니메이션(애니메이션)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일본이 많 이 있는데거든요 -또 바다의 동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비언어	제스처		
	상호작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 정치에게 머리 맞장구 일본인 정치에게 잔잔히 발음 	-그 여섯 머리 중에 하나가 올 수영 에 (머 리 맞장구) 팔 수가 없어요 예 (머리 맞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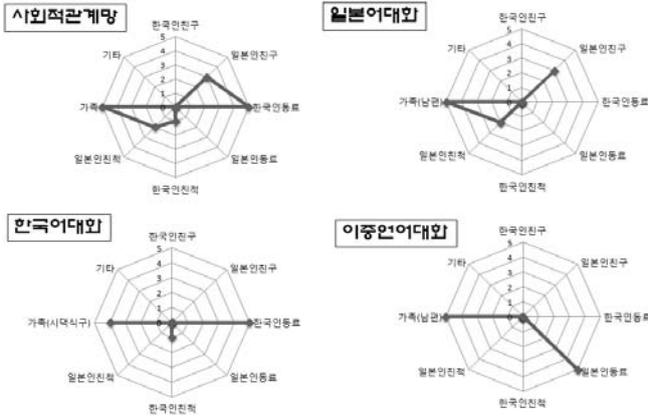
(3) 연구대상자 5번 H씨

이하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5번 H씨의 속성과 사회 · 언어적 관계망(그림 7), 언어 · 비언어적 특징(표 7)을 나타낸다.

① 속성

- A. 연령: 42세
- B. 일본 출신지: 미기록
- C. 한국체재기간(체재 장소): 5년2개월(부산), 2년10개월(안양), 총 8년
- D. 시부모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근처 거주)
- E. 자녀: 없음
- F. 거주 지역: 해운대구 좌동
- G. 다문화 접촉도: 있음
- H. 다문화 접촉 대상: 이웃에 사는 결혼이주여성(2명 정도)

② 사회·언어적 관계망



<그림 7> 연구대상자 5번의 사회·언어적 관계망

③ 언어·비언어적 특징

<표 7> 연구대상자 5번의 언어·비언어적 특징

존용/변용레벨		발견특징	예시
언어	어휘	▪ 일본어 빌터	-에뜨(えーと), 예(えー)
	문법/표현	▪ 일본식영어사용	-스도로우
비언어	제스처	▪ 발화내용을 강조	-어떤 평권이 낚시를 마려고 (낚시 제스처) -던지고(낚시대를 던지는 제스처) -(구멍 모양 제스처) 구멍이 있고 -다른 명제들은 수영할 줄 알고 (수영 제스처)
	상호작용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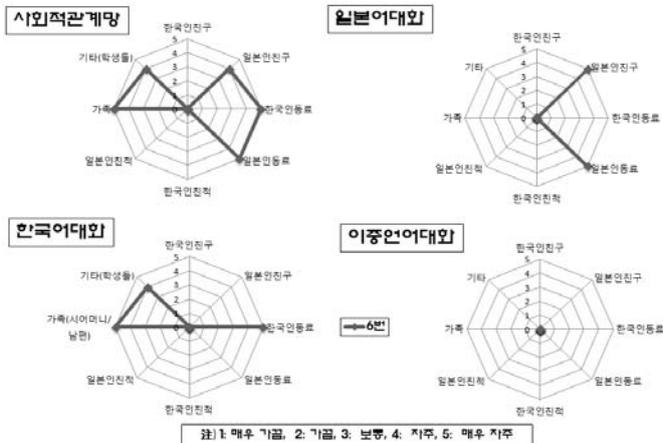
(4) 연구대상자 6번 M씨

이하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6번 M씨의 속성과 사회·언어적 관계망(그림 8), 언어·비언어적 특징(표 8)을 나타낸다.

① 속성

- A. 연령: 36세
- B. 일본 출신지: 오키나와
- C. 한국체재 기간(체재 장소): 13년 3개월(부산)
- D. 시부모 동거 여부: 시어머니와 동거
- E. 자녀: 없음
- F. 거주 지역: 사하구 하단동
- G. 다문화 접촉도: 있음
- H. 다문화 접촉 대상: 일본인 친구, 교육과정에 있는 다국적 사람들(※ 의료관광, 관광통역서비스 과목)

② 사회·언어적 관계망



<그림 8> 연구대상자 6번의 사회·언어적 관계망

③ 언어 · 비언어적 특징

<표 8> 연구대상자 6번의 언어 · 비언어적 특징

혼용/변용레벨	발언특징	예시	
언어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 필러 일본어 단어 	-에(えー), 에도(えーと) -오키(浮き)
	문법/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레 인지형 → 현재형 수동표현 → 능동표현 단어 혼동 단어(アシカ) 설명 일본식 영어발음 	-어디에서 낚시 것을 하는지(잡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병아리를 손잡아서 고양이인 안 잡으려고 (고양이 안테 안 잡으려고) 도망갑니다 -스토로우에서 공기를 빌면서(빌면서) -대마도에 옛날에 이 대마도 아니고 술呀 이 특도에 옛날에 많이 있었다는 그 물개? -아니메이션
비언어	제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화내용을 강조 	-그 구멍(구멍 모양 제스처) 얼음 구멍 밑에 -낚시 미끼(미끼 모양 제스처) 미끼를 던지고 -미끼를 (미끼를) 먹는 제스처; 하늘에 집어넣고 -그 물고기를 배 물개기 먹습니다(먹는 제스처) -안뜰에서 애엄치면서 어디 갑니다(애엄 치는 제스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일본인 청자에게 확인질문 	-스토로우에서 공기를 빌면서(빌면서) 이애가 됩니까? -그런 내용의 아니메이션인데요 이애가 되셨는지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 맞장구 	-그런 내용의 아니메이션인데요 이애가 되셨는지요? 네 (머리 맞장구)

4.3.2. 직장인 주부(4명)의 언어혼용과 비언어행동 및 상호작용

(1) 언어적 혼용

앞 절에서 분석한 직장인 주부 4명의 한국어 발화를 전업주부와 비교해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직장인 주부의 한국어 발화에서 나타난 어휘 단위(예컨대 일본어 필러와 일본어 조사)의 혼용은 전업주부와 비해 그 출현횟수가 적었다. 둘째, 직장인 주부들의 문법 · 표현 단위의 혼용(오용) 또한 전업주부들에 비해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6번 화자의 경우 문법 · 표현 단위에서의 오용이 다른 화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8 참조). 셋째, 세 명의 화자(3, 4, 6번) 발화에서 특정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러한 ‘단어 설명’ 특징은 전업주부들의 발화에서는 보이지 않은 현상이었다.

(2) 비언어행동 및 상호작용

다음으로 직장인 주부 4명의 비언어행동 및 상호작용 특징을 살펴보

면, 첫째로 청자와의 상호작용(예컨대, 청자에게 확인질문, 시선맞춤)이 전업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단 6번 화자의 경우 ‘확인질문’의 상호작용 있었음). 둘째로 청자를 배려하는 발화특징도 보였는데, 예컨대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속도를 천천히 한다든지(3, 4번 화자),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상하로 흔들면서 맞장구치는 모습이 그러하다(4, 6번 화자). 셋째로, 발화내용을 제스처로 대체하거나(3번 화자) 강조(5, 6번 화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이문화간 의사소통에서 언어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 특징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의 개방성과 역동성, 혼효성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도시 부산에 거주하면서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로 발화할 때 언어(언어혼용) 및 비언어 행동(상호작용)에 어떠한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밝히는 데 있다. 이때 조사방법으로는 질문용지에 의한 한·일 언어사용 의식 및 영상자료에 의한 비언어행동 분석을 채택했으며, 구체적 언어혼용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네 단계에 걸쳐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네 단계에 걸친 분석에서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속성을 ‘전업주부’와 ‘직장인 주부’로 구분해, 1·2단계의 분석에서는 이들의 언어혼용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진 3·4단계의 분석에서는 비언어 행동 및 상호작용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분석 1단계로서, ‘전업주부’의 언어혼용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한국어 발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업주부의 한국어 발화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전업주부의 한국어 발화에서는 어휘 단위(예컨대 일본어의 필러(fillers)와 조사, 단어 및 영어 사

용 등)의 혼용이 많았는데 특히 1번과 2번 화자의 발화에서 두드러졌다. 그리고 1번 화자의 경우는 어휘 뿐 아니라 문장 단위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혼용하는 현상이 보였다. 이 두 명 화자의 사회·언어적 관계망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는 관계망이 각각 ‘한국인 친구’(1번)와 ‘가족’(2번)만으로 평소 한국어에 의한 의미교섭망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두 명 화자의 언어관계망에서는 ‘한국어 대화’보다 ‘일본어 대화’가 더 넓었으며 그 횟수 또한 많았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⁷⁾ 따라서 이 두 명 화자의 발화에서 어휘 단위의 혼용이 많았던 원인을 추정해보면, 평소 한국어와 일본어를 혼용하여 대화하는 언어생활습관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둘째로, 모든 전업주부의 발화에서 모어인 일본어 영향에 의한 언어혼용(오용)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수량의 많음이나 정도의 높음을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으로 ‘몇 번이나’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은 ‘何度(몇 번)+も(이나)’이다. 여기서 ‘~이나’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も’는 한국어 보조사로 쓰일 때 ‘~도’로 번역되는데, 이러한 일본어의 영향으로 ‘몇 번이나’를 써야할 장면에서 ‘몇 번도’라는 표현을 했다(1번 화자). 그 외에 한국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숨을 쉬다’, ‘두껍을 단다’를 각각 ‘숨을 하다(息をする)’, ‘두껍을 하다(蓋をする)’라는 일본식으로 표현한

7) 황정미(2010)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연결망 유형과 행위전략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했다. 황정미(2010: 33)는 이주여성의 연결망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즉 ‘가족 중심형’과 ‘한국인 친구 중심형’, ‘이주민 친구 중심형’이 그것이다. 황정미(2010: 33)에 따르면, ‘가족 중심형’ 연결망 유형의 이주여성들은 결혼으로 형성한 현재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려는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친구 중심형’ 연결망의 여성들은 취업과 사회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가족의 반대에 저항하며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친구 중심형’ 연결망을 가진 여성들은 자신들의 출신국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을 민감하게 느끼며 ‘문화적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것도 일본어 동사 ‘する’를 그대로 직역함으로써 나타난 혼용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눈에 띄는 특징으로 수동표현을 능동표현으로 변용한 현상이 보였다(7, 8번 화자). 즉 두 명의 화자 발화에서 수동문을 사용해만 자연스러운 장면에서 능동문으로 표현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예컨대 ‘낚시에 물고기가 잡아있었는데’의 능동표현은 ‘낚시에 물고기가 잡혀있었는데’의 수동표현으로 바뀌야 자연스럽다. 안증환(2004)은 한국어와 일본어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유형을 문화적 차이를 토대로 추출하고자 했는데, 안증환(2004: 25)에 따르면 한국문화와 일본문화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요컨대 능동과 수동, 원형과 변형, 구상과 추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유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와 남을 통합해서 보는가(한국문화), 아니면 구분해서 보는가(일본문화)와 같이 문화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증환(2004)의 관점을 토대로 한국문화와 일본문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한국문화는 능동과 원형, 구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일본문화는 수동과 변형, 추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두 명의 화자이긴 하나, 이들이 한국어 발화에서 수동표현을 능동표현으로 변용한 현상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첫째로, 그런 현상은 이들이 능동문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어의 언어문화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 즉 중간언어(interlanguage)⁸⁾에서 나타난 일시적 변용현상일 수 있다. 또 하나는 화자 중심적 시점에서 바라본 주관적 표현일 가능성이인데, 이러한 해석 가능성은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존댓말의 과잉일반화’와 ‘3인칭 시점을 1인칭 시점으로 혼돈’(표 2 참조), ‘모르는

8) “중간언어(interlanguage)”란 구조적으로 모어(L1)와 목표언어(L2)의 중간에 위치하는 제2언어학습자의 독자적 체계를 지칭한다. 중간언어에는 첫째로 끊임없이 목표언어를 향해 발달해 나간다는 점에서 ‘침투성’이 있으며, 둘째로 L2규칙을 수정·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가변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기존의 규칙을 토대로 언어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체계적’ 특징이 있다 (応用言語學事典, 2003: 151).

단어 회피’, ‘주격조사 생략’(표 3 참조), ‘동사의 의지형을 상태형으로 표현’(표 4 참조) 등의 특징이 있었다. 예컨대 2번 화자의 여성은 남편이 배를 타는 선원이라 집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평소 시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한다고 심층면접에서 대답했다. 따라서 이 여성의 발화에서 나타난 ‘존댓말 과잉일반화’현상은 시어머니에 대한 평소 어투가 만화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에게도 확대 적용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분석 2단계에서 ‘직장인 주부’의 한국어 발화를 전업주부의 한국어 발화와 비교해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직장인 주부의 한국어 발화에서 나타난 어휘 단위(예컨대 일본어 필러와 일본어 조사)의 혼용은 전업주부에 비해 그 출현횟수가 적었다. 예컨대, 전업주부의 발화에서는 ‘에-토(えーと)와 예(えー), 데(で), 음-토(음ーと), 어-토(어ーと)’와 같은 다양한 간투사가 사용된 것에 비해, 직장인 주부의 발화에서는 ‘에-토(えーと), 예(えー), 데(で)’의 간투사 정도만 사용되었다. 여기서 ‘음-토, 어-토’는 한국어의 간투사 ‘음-’과 ‘어-’에 일본어 간투사 ‘토(~と)’가 각각 결합되어 생겨난 혼용이라 보인다. 이처럼 어휘 단위의 혼용은 전업주부보다 직장인 주부에서 적었지만, ‘일본식 영어발음(예컨대 애니메이션, 스토로우)’혼용은 직장인 주부화자(3명 출현)에서 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외래어이므로 유사한 발음만으로 의미소통이 가능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일본식 영어발음이 출현됐던 3명의 직장인 주부들은 굳이 한국식 영어발음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직장인 주부들의 문법·표현 단위의 혼용(오용) 또한 전업주부들에 비해 적었다. 단 6번 화자의 경우 문법·표현 단위에서의 오용이 다른 직장인 주부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컨대 앞서 전업주부들의 발화특징에서도 나타났던 ‘수동표현을 능동표현’으로 변용한다든지 ‘미래의지형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현상, 그리고 ‘단어를 혼돈하는 현상’이 있었다(표 8 참조). 이 화자는 결혼 후 부산에 장기간 거

주하며 대학에서 의료관광 및 관광통역의 과목을 한국어로 가르치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화자에게 문법·표현 단위에서의 오용이 다소 존재했던 이유에는 한국어 습득과정에서 불완전했던 중간언어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화석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셋째, 세 명 화자(3, 4, 6번)의 발화에서 특정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러한 ‘단어 설명’의 특징은 전업주부들의 발화에서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3번 화자는 일본인 청자에게 자신이 모르는 단어(빨대)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고, 4번 화자는 한국인 청자에게 남극에 대한 부연설명을 했다. 그리고 6번 화자는 한국인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アシカ(물개)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화자가 アシカ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물개)를 검색하는 기능을 했으리라 추측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직장인 주부들의 발화 특징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전달해야 할 의미가 있을 때 전업주부들과 비교해 -상대방이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언어에 의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진 3단계 분석에서는 전업주부들의 비언어행동 및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먼저 전업주부들은 청자와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예컨대, 청자에게 확인질문, 시선맞춤)을 활발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예시로 1번 화자는 -청자가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작은 닭 한국말로 뭐해요[뭐라고 해요]”, “아자라시 한국말로 뭐해요[뭐라고 해요]”⁹⁾와 같은 ‘확인질문’을 했으며, 8번 화자도 “팽귤? 팽귤이라고 해도 됩니까?” 등의 확인을 했다. 그리고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예시로 2번 화자의 ‘시선 맞춤’을 들 수 있는데, 2번 화자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모르는 단어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면 청자에게 시선을 맞추며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2번 화자는 자신

9) 본 고찰에서 사용하는 기호 중 []는 올바른(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가리키며, { }는 비언어행동이 출현된 곳을 가리킨다.

이 묘사하기 어려운 이야기 장면을 한국인 청자에게 도움을 청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인 청자가 대신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전업주부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침묵으로 가만히 있거나 웃음으로 회피해버리는 비언어적 행동전략을 사용했다(특히 1, 2, 8번 화자). 예컨대 “항상 그런 이야기 {침묵} {웃음} 에-토 에- 오아리데스”(1번 화자), “도망...아 어떡해 {웃음} 음...{침묵}”(2번 화자), “바다 중에 얼음 있었습니 {웃음} 있어서 {웃음} 근데...” “장난스럽게 하는 그 동물에게 좀 화가 나서 좀 싸웠어요 {긴 침묵}”(8번 화자)등이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들은 발화내용을 강조하거나 보완하고 싶을 때 제스처를 사용했는데, 특히 7번 화자의 경우 ‘제스처+<하다>체’행동전략을 풍부하게 사용했다. 예컨대 “닭 {날개 짓} 작은 한국말로 뭐해요[뭐라고 해요]”(1번 화자), “제리가 도망가서{달려가는 제스처;...}”(2번 화자), “팽권이 앞으로 확 {앞으로 당기는 제스처} 하는 거야”, “취는 이렇게 {헤엄치는 제스처}하는 거야, {헤엄치는 제스처}하면서, 이렇게 {헤엄치는 제스처} 연습해도...”, “고양이 얼굴을 팡팡 {바늘로 찌르는 제스처} 했어요”(7번 화자)등의 예가 그러하다. 이 중에서 ‘제스처+<하다>체’를 풍부하게 사용한 7번 화자는 4명의 전업주부들 중 한국어로 대화하는 언어관계망이 가장 넓었으며(한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척, 시어머니) 한국어로 대화하는 횟수 또한 많았다. 따라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접촉 장면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7번 화자는 ‘제스처+<하다>체’를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미교섭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전업주부들은 대화(전달)의 완성을 혼자서 일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 -비언어적 행동 및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협력·창조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업주부들의 외국어(한국어) 사용에서 활발히 나타나는 이러한 비언어 행동 전략은 -바바의 모델을 빌어 설명하자면- 동화와 모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창조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현상, 달리 말해 제3공간 내지

틈새를 확연히 인지케 하는 현상이며, 그런 의미에서 활발한 창조적 혼용과 교섭을 확인시키는 현상일 것이다.

마지막 4단계 분석으로서, 직장인 주부들의 비언어행동 및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청자와의 상호작용(예컨대, 청자에게 확인질문, 시선맞춤)이 전업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단 6번 화자의 경우 청자와의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예컨대 “스토로우에서 공기를 빌면서[불면서]... 이해가 됩니까?”라든지 “그런 내용의 아니메이션인데요... 이해가 되셨는지요?”와 같은 ‘확인질문’을 했다. 둘째로 청자를 배려하는 발화특징도 보였는데, 예컨대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속도를 천천히 한다든지 (3, 4번 화자),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으로 머리를 상하로 흔들며 맞장구치는 모습이 그러하다(4, 6번 화자). 이러한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는 전업주부들의 발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능숙한 한국어 구사능력과 사회활동 경험으로 인해 상대방의 언어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셋째로, 발화내용을 제스처로 대체하거나(3번 화자) 강조(5, 6번 화자)하는 모습도 보였다. 구체적으로 3번 화자는 발화내용을 제스처로 대체했는데, 예컨대 “그래 숨을 {숨 쉬는 제스처} 그래서 쥐 얼굴이 부었어요[부어올랐어요]”라 하며 동물이 숨 쉬는 장면을 제스처로 묘사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특징은 3번 화자의 경우, 직장인 주부뿐 아니라 본 조사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 사회적 관계망과 한국어 대화 관계망이 가장 넓었으며 그 횡수 또한 많았다. 그렇지만 비언어행동 전략이나 청자와의 상호작용 특징은 비교적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능숙한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언어정보만으로 의미전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발화내용 강조’의 예로는 “어떤 펭귄이 낚시를 하려고 {낚시하는 제스처} 던지고 {낚싯대를 던지는 제스처}”, “다른 형제들은 수영할 줄 알고 {헤엄치는 제스처}”(5번 화자), “그 구멍 {구멍 모양 제스처} 얼음 구멍 밑에”, “낚시 미끼 {미끼 모양 제스처} 미끼를 던지고”, “그

물고기를 빼 물개가 먹습니다 {먹는 제스처}”(6번 화자)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직장인 주부들은 전업주부들에 비해, 대화(전달)의 완성을 청자와의 상호작용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화자 일방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행동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종렬(2009: 108)에 따르면 이주민들의 행위전략은 문화를 고정된 상징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한 레퍼토리로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들을 골라내어 자기 나름의 삶의 전략을 만들어가는 실천적 과정이다. 따라서 전업주부들(쌍방향적 소통, 비언어행동전략 중심)과 직장인 주부들(일방향적 소통, 언어전략 중심)의 언어·비언어 행동전략을 비교했을 때, 전업주부들의 의사소통 전략은 교섭의 시공간, 달리말해 제3공간 내지 혼종시대의 존재를 직장인 주부들의 경우보다 더욱 분명하게 인지케 하며, 거기서 이뤄지는 창조적 혼용과 교섭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준다.

6. 나가며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문화간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떠한 언어 및 비언어적 특징이 있는지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용지와 영상분석을 토대로 4단계의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1단계로서, ‘전업주부’의 한국어 발화를 분석한 결과, 어휘 단위의 혼용이 많았는데 특히 두 명의 화자 발화에서 두드러졌다. 그리고 모어인 일본어 영향에 의한 언어혼용과 수동표현을 능동표현으로 변용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분석 2단계로서 ‘직장인 주부’의 발화내용을 전업주부와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직장인 주부의 어휘 및 문법·표현 단위의 언어혼용은 전업주부에 비해 적었다. 마지막으로 세 명 화자의 발화에서 특정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러한 ‘단어 설명’

은 전업주부의 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특징이었다.

이어진 3단계 분석에서는 전업주부의 비언어행동 및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업주부들은 대화(전달)의 완성을 혼자서 일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협력·창조해 나가는 특징이 있었다. 마지막 4단계 분석으로서, 직장인 주부들의 비언어행동 및 상호작용 특징을 살펴보면, 직장인 주부들은 전업주부들에 비해 대화(전달)의 완성을 청자와의 상호작용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화자 일방향으로 구성해 나가는 행동전략 특징이 있었다.

이상 3·4단계의 분석에 근거할 때 일본인 전업주부들의 비언어 행동 의사소통 전략은 바바가 말하는 제3공간 내지 틈새, 혼종지대와 거기서 진행되는 창조적 혼용 및 언어문화적 교섭과정을 직장인 주부들에 비해 훨씬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확인시켜 준다.

<참고 문헌>

- 김선정(2007).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33, 423쪽~446쪽.
남길입(2011). 담화 유형에 따른 한국어 비유창성 현상 연구, <담화와인지> 18권 3호, 115쪽~138쪽.
안증환(2004). 문화적 차이에 근거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상대적 언어유형, <일어교육> 29집, 17쪽~43쪽.
오미경(2012). 부산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접촉·갈등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구조에 관한 연구: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체스처 산출양식을 통해 본 타자적 표상, <일본어교육> 60집, 27쪽~49쪽.
왕한석(2007). 『또 다른 한국어』, 교문사.
이정희(2011). 외국인의 한국어 구어 발화에 나타난 연결어미 사용 양상 연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5호, 189쪽~207쪽.
정진경·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권 1호, 101쪽~136쪽.
조창환·성윤희(20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친화도에

-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어권 외국인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보> 54권 4호, 374쪽~436쪽.
- 최종렬(2009). 탈영토화된 공간에서의 베트남 이주여성의 행위전략, <한국사회학> 43권 4호, 107쪽~146쪽.
- 최혜지(2008). 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유형과 판별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248쪽~254쪽.
- 호미 바바(2002).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서울: 소명출판사.
- 황정미(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권 4호, 1쪽~38쪽.
- 田中敏(1981). 日本語発話における言いよどみ現象の分類と特徴づけ, <心理学研究> 52(4), pp. 213-228.
- リチャーズ. J., 플라ット. J., 웨어バー. H. (編) 山崎真穂 · 高橋貞雄 · 佐藤久美子 · 日野信行(訳) (1995). 『ロングマン応用言語学用語辞典』. 南雲堂.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 5-68.
- Bhabha, Homi K. / Rutherford, J. (1990). The Third Space - Interview with Homi Bhabha,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ed. by J. Rutherford, London, pp. 207-221.
- Clark, H. H. & Fox Tree, J. E. (2002). Using uh and um in spontaneous speaking. *Cognition*, 84, pp. 73-111.
- Gibson, M. A (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1), pp. 19-23.
- Levelt, M. (1989) *Speaking*. Cambridgem MA: MIT Press.
- Shimada, Shingo (2004). Politik zwischen Differenz und Anerkennung: Multikulturalismus und das Problem der Menschenrechte. *Handbuch der Kulturwissenschaften*, ed. by Friedrich Jaeger / Jörn Rüsen, Bd. 3, Stuttgart/Weimar, pp. 474-488.

216 이중언어학 제51호(2013)

오미경(OH, Mi-Kyo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606-79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1번지 종합관 3층 304호

전화번호: 010-6605-4733

전자우편: omksung@hanmail.net

박민수(Park, Min-soo)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606-79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1번지 종합관 3층 315호

전화번호: 010-6229-8944

전자우편: grau6ms@hotmail.com

접수일자: 2012년 12월 14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2월 4일

게재확정: 2013년 2월 6일